

# 탄소소재 의료기기 산업 육성 선도 기대

### 전북도·전북대병원, 국내 유일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개소... 시제품 제작·기업 지원 등 수행

전북도는 전북대학교병원과 함께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20일 전북대병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운천 국회의원을 비롯해 복지부, 전북도, 전북대병원 주요 관계자 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 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식 및 센터 투어 등이 진행됐다.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생체적합성 탄소소재 의료기기 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4년간 총 125.5억이 투입돼 전북대 병원 내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2,053.08㎡) 규모로 지난해 10월 건축을 완료했으며, 올해까지 의료기기 제작 성형·가공 및 시험평가 장비 등 총 35종을 구축하고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과 평가, 기업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생체적합성 탄소소재 의료기기는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형외과 메탈소재와 치과용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의 경우 주변 뼈 조직의 약화 및 유실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튼튼하며 부작용이 적어 생체적합성



전북도는 전북대학교병원과 함께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20일 전북대병원에서 개최했다.

이 높다. 또한 X-ray, MRI 검사장비에 진료 부분이 가려지지 않는 이점을 가진다.

그동안 도는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해 왔고 관련 기업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관련 인프라가 풍부해 탄소소재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센터 개

소로 국내에서 유일한 탄소소재 의료기기 전문기관을 보유하게 돼 관련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후속 R&D 사업인 '생체적합성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오택립 미래산업국장은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개소는 탄소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의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전라북도가 탄소소재 의료기기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제101회 어린이날 대축제'

### 전북도, 5일 72개 체험놀이 프로그램 등 진행

전북도가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어린이날 대축제'를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개최한다. 어린이창의체험관은 도내 어린이 산 초대에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어린이날인 5일 10시부터 시작되는 대축제에서는 식전공연과 기념식을 비롯해 체험관 내·외부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특별 체험놀이 프로그램이 열린다.

특별 체험놀이 프로그램에서는 △요리마당(솜사탕·인절미 만들기 등), △전통마당(투호놀이, 비석치기 등), △오감마당(캔버스그리기, 키팅 만들기 등), △놀이마당(색깔판 뒤집기, 줄다리기 등), △상설마당(체험관 내 상설 프로그램), △창의마당(미술·VR 체험 등), △정보마당(도내 기관

프로그램) 등 7개 분야의 72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도는 당일 행사에 체험 부스별로 인원을 제한하고 사전 등록된 차량만 입장을 허가하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6일에는 도내 아동복지시설 소속 어린이들 130여 명을 어린이창의체험관에 특별 초대한다. 모든 아이들이 가정의 달 5월의 온기를 누릴 수 있도록 페이스페인팅, 공연, 상설체험, 요리교실 등 다양한 체험과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번 어린이날 대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창의체험관 공식 누리집(<https://jchild.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김재훈 기자

## 전북새일센터, 여성친화일촌기업과 협약 체결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전정희)는 20일 여성친화일촌기업 발굴을 위한 상호업무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센터 주관으로 메이커팩토리, (주)커넥트, 늘푸른집, 유니레즈(주), 농협회사법인인 꼬숩식품(주), 나라방재(주) 등 도내 15개 기관 대표 및 인사담당자가 참석했다.

여성친화일촌협약기업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함에 있어 향후 센터를 통해 배출되는 여성인력의 우선 연계는 물론 새일여성인턴, 기업환경개선,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전정희)는 20일 여성친화일촌기업 발굴을 위한 상호업무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받을 수 있다. 전정희 센터장은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맞춤형 여성인력 육성을 통한 취업연계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친화일촌기업을 지속 발굴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전라북도도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11개 시·군 공동 개최

### 전국 최초 도내 시군별 문화예술기관 공동 기획전시

문화예술 향유와 공유의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는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 이하 미술관)과 도내 시·군별 문화예술기관이 함께한 '2023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이 11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무주, 순창, 완주, 진안, 임실) 모든 전시공간에서 열리고 있다.

'2023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은 미술관이 2009년부터 해마다 소장품을

엄선해 도내 14개 시군 문화공간을 대상으로 기획해 온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의 연장선에서 기획했다.

작년까지는 전시를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연간 7~8개 시군 전시공간을 선정하고 미술관 학예연구팀에서 기획한 전시를 발표했으나, 올해는 시군 공립미술관 및 전시공간에서의 공동개최를 목표로 준비했다.

이에 14개 시군 연석회의를 수차례

거치면서 전시기획 및 전시일정 등을 조율해 왔으며, 그 결과 미술관 및 11개 시군 학예연구팀이 공동으로 전시를 기획하는 '2023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전시를 개최하게 됐다.

'2023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은 도립미술관의 소장품 175점을 대어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무주, 순창은 공립미술관 학예연구사가 전시를 기획했고, 완주, 진안, 임실은 도립미술관의 학예연구팀이 기획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소장품 대여로 이뤄진 '2023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은 각 시군 공립미술관과 문화예술기관 간의 연대를 통해 도내 미술계가 상생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미술관과 시군 공립미술관 및 전시공간에서의 쌍방향 협력 전시는 타지역 공립미술관에서는 시도하지 않은 첫 사례다.

각 전시내용과 자세한 관람 일정은 각 기관 누리집 및 기관에 문의·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성공적 유보통합 위한 정책 제안 대토론회 개최

지난 1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이 마련됐다.

전북도는 학계,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부모가 함께하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 대토론회'를 2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했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

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정책으로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대해 관계자들이 바라보는 실현 방안과 고려할 사항, 바람 등을 제안하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꾸러졌다.

본 토론회에 앞서 지혜진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이 참석해 유보통합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과 진

행 상황을 공유하며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토론은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서영미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세명대학교 한승이 교수의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만들기'라는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어서 학계,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부모 대표인 전북대학교 김태연 교수, 전주 송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최미숙 원장, 전라북도 어린이집 연합

회 신은옥 회장, 익산 부송 유치원 부모 심재희님이 제안을 발표했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하며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격차 해소 방안, △전북형 아이행복지구 운영, △유아교육과 보육의 감정을 살린 유보통합, △교사 양성 시스템 마련, △놀이 중심의 교육활동이 가능한 교육 및 돌봄 시설 구축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본격 활동 시동

전북도는 20일 일상생활 속에서 작지만 가치 있는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제안에 참여할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과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생활발착형 아이디어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도정 개선을 위한 정책현장 참여와 나눔 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는 위촉식, 정책기법 교육

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활동 방향설정,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여단의 첫걸음 안내자로 국민정책디자인 전문가 로보앤컴퍼니 정인애 대표가 '생활공감정책 제안 길잡이'라는 주제로 정책제안기법 등을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참여단으로서 포부를 담은 영상 상영해 9기 참여단의 열정을 서로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이목을 끌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